

놀이 지원을 위한 학습공동체 실천 이야기



부산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원장 김윤숙

Why

학습공동체인가?

【 놀이실행자료 p68 】

유아·놀이중심을 강조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의 놀이를 읽어내고 지원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함께 교육과정과 수업을
연구하고, 성찰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전문성
신장과 더불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며 교육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교사 개개인의 삶이 복잡하게 맞닿은 **어린이집 공동체**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며, '**같이**' 문화를 향유하고, '**같이**' 서로의 나아갈 바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다.
- 우리는 **학습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나누고,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을 '**같이**' 찾아갔다. 그러면서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키울 수 있었다.

목차

첫 번째
작은 이야기

학습공동체
도전기

1

2

두 번째
작은 이야기

학습공동체
에서의
나(원장)

세 번째
작은 이야기

학습공동체
에서의
나(보육교사)

3

4

네 번째
작은 이야기

놀이지원
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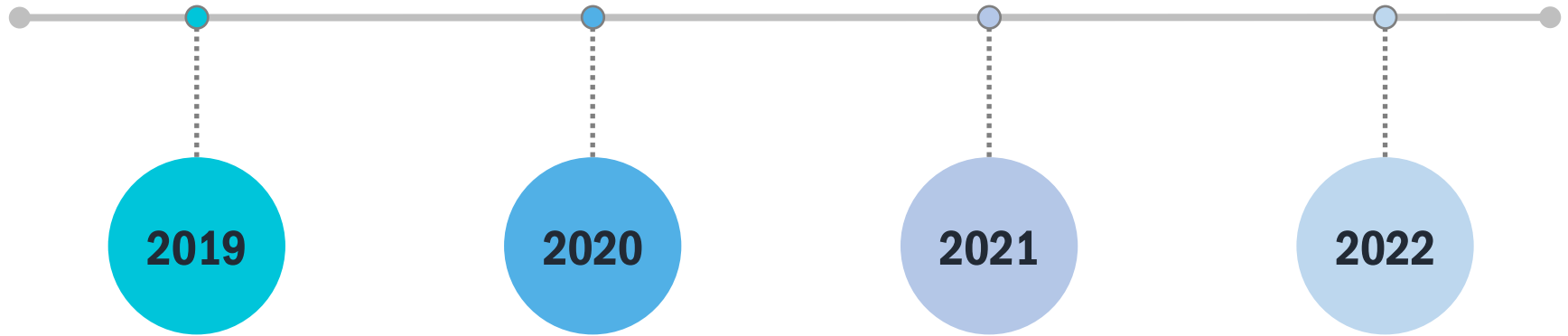
사진출처: kr.123rf.com

사진출처: 거친 파도를 헤치고(김재철)

1

학습공동체 도전기

■ 학습공동체 도전기 : 놀이와 배움의 유쾌한 향해



● 개정누리과정 시범운영

● '학습공동체' 씨앗 심기

● 뿌리 내리기

● 열매 맺기

● 교수협의체와
함께 하는
학습공동체



2019년



전문적배움공동체에 초대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들의 교육실천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전문적배움공동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모임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구성되며, 선생님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참여, 협력적인 관계, 실재를 통한 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배움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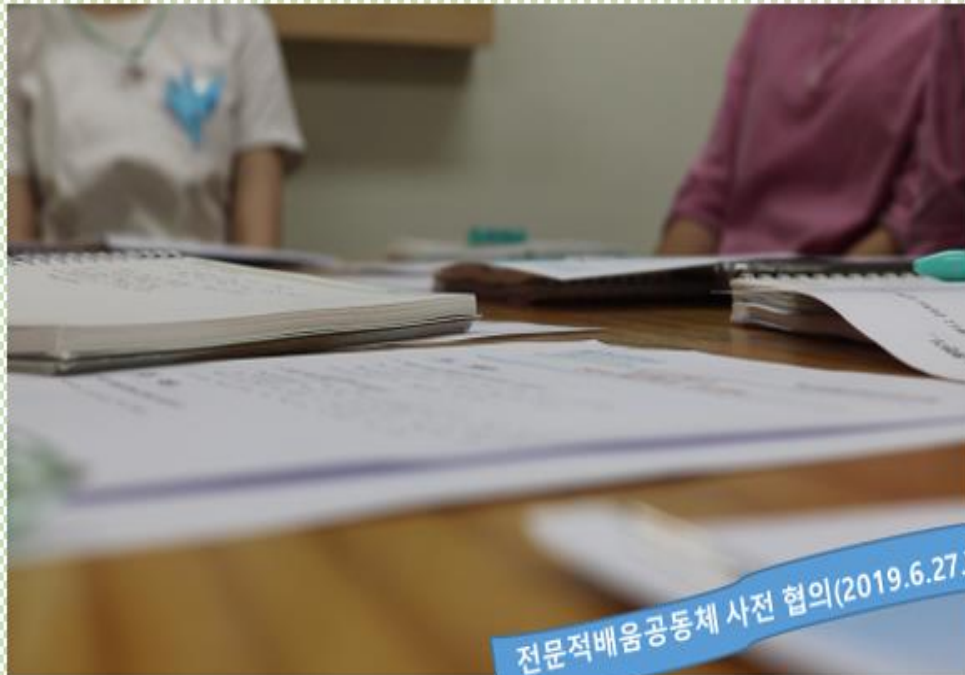
----- 아 래 -----

⊙ 모임 일시 : 매 월 격주 수요일 17:30-18:30

⊙ 모임 장소 : 1층 배움의 공동체실

※ 첫 모임은 2019년 6월 27일(목) 오후6시입니다.





전문적배움공동체 사전 협의(2019.6.27.)

원장님의 입장에서 배움공동체 모임을 교사들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참여하라고 제안하고 계시지만 교사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거절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업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운영방향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근무시간(은) 똑같고, 업무량(은 줄지 않고 지금처럼) 똑같으면(서도) 이것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사실 자발성이라는데...

(이 교사)



이미지 프리즘 카드



배움공동체에서 고군분투하는 나의 모습이 연상된다. 즐겁고 신나는 래프팅이 아니라 급류에 휩쓸려 위험에 처해있고, 계곡에 빠지지 않으려고 사투를 벌이는 내 처지를 떠올렸다.

<최 교사>

이 장독간은 나의 마음이고, 장독들은 나의 수많은 스트레스와 해야 할 일이다. 마음이 가볍지 않고, 배움공동체도 처리해야 할 새로운 일거리처럼 느껴져 마음이 무겁다.

<조 교사>





이 선물상자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배움공동체가 과연 나에게 어떤 배움의
선물로 다가올지, 아니면 정말 힘든 시
간이 될지, 그 속에 무엇이 들어 있을지
너무 궁금하다.

<박 교사>

나는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
다. 오늘 아이들과 고군분투했더니 잠
시나마 누구로부터도 방해 받지 않고
나만의 휴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허 교사>



학습공동체 1기 모임 내용

놀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통합자유놀이

아이들의
놀이선택권

통합자유놀이
실천 사례 공유

발달 경계선상의
영유아 지원 방안

민감한 부모
마주하기

어린이집 공간
다시 보기

어린이에게
귀 기울이기

유아 평가 및
놀이 계획

아이들의 놀이가 자발적, 주도적인가?

-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인가?
- 놀이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아이가 주도적인가?
- 환경이나 자료, 공간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 융통성, 선택권 등이 있는가?
-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부분이 많은가?
- 즐거움이나 몰입 등이 보이는가?
- 교사가 환경, 자료, 공간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여 놀이의 확장이 일어났는가?
- 교사가 놀이 전체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상황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졌는가?

나에게 사고의 확장, 발상의 전환을 일궈준 학습공동체이다. 나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왔고, 조금씩 변화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생각지도 못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놓여있는 나 자신이 꽤나 즐거워하고 있음을 느낀다.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며 성장해 갈 우리의 모습이 기대된다. (이 교사)

학습공동체가 거듭될수록 내가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의식적으로라도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나에게 '배움'이라는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 시간이 너무나 나에게 생동감 넘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지 교사)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욱 알이 차오르고 단단해짐을 느끼는 공동체이다. 교사 개개인이 겪고 경험하는 구체적인 사건은 다르지만, 일상에서 겪는 일부터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즐긴 놀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어려운 일들을 함께 터놓고 이야기 나누고 공유하니 서로의 생각들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큰 힘을 받으며 더욱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어 감사했다. (조 교사)

2020년

* 올해 첫 배움공동체를 하며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나도 이제 교사구나!
교사에게 대한 호감도 들었고, 현상까지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도 그런 멋진 교사에게 되고 싶다!!

아...!
들끓음

이렇게 어릴 때부터 독도 주권과 사회
관계의 맥락과 함께 지내도록 통해
비로소에게 영감을 주는 비로소 사회가
희미해져, 그 영감을 주었던 비로소의
정서와 지혜, 잊어버려나가고
교사라는 것을 느낀다

좋은 배움공동체입니다
기쁘게도 조금은
걱정되지만 안 그래도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배움 공동체
기쁘게도 소한
배움공동체는
있는 것은 이상
너무 좋네요♥

배움공동체
배움공동체가 많이 배움공동체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걸로 배움공동체를
함께 할 때는 배움을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배움을 들어줄 수
있는 배움공동체
함께 할게요!!

교사로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자. 전공자 자세
갖고자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 같
큰 기대가 됩니다!!

2020년을 새해의 순간처럼
2020 무엇이든지 새롭고
즐거울 것만 같은 착각♡
"배움공동체" 그 속에 파고들어
나도 함께
하겠다!!!
2020 모든 일이 다 잘되길
모든 순간이 즐겁길♡♡

교사로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쌓아나가고 전문적 자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 큰 기대가 된다.

2020이라는 새해의 순간처럼
2020 무엇이든지 새롭고
즐거울 것만 같은 착각♡

“배움공동체” 그 속에 파고들어
나도 함께 하겠다!!!

2020 모든 일이 다 잘되길
모든 순간이 즐겁길 ☺ ♡♡

학습공동체 2기 모임 내용

학습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교사로서 배움이
일어났던 순간들

물질의 행위주체성
과 교육적 기록

우리의 기록이
나아가고 있는
곳

기록의 방향성

모험놀이터를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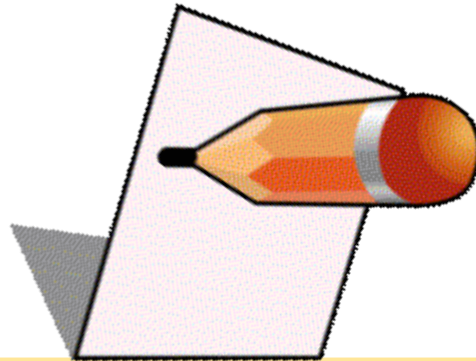
예비유아교사
실습지도방안

놀이와 예술적
경험

우리반에서의
놀이, 그리고 배움

학습공동체 3기 모임 내용

우리반에서 일어난 놀이와 배움
글로 정리하는 시간 갖기



2022년

교수협의체와 함께 하는 배움공동체 활성화 방안

- 교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구성원과 함께 해결해 나감
- 자문 교수와 교사 간 협력적 관계 형성
-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한 자율적이고
협력적 조직문화 구축

학습공동체의 성공을 위한 꿀팁!

자발성

비전과
가치 공유

동료성

민주적
문화

여건
조성

2

학습공동체에서의 원장

관리자?

감독자?

원장은
어떤 존재인가?

평가자?

조정자?

1. 학습공동체 길 닦기: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 리더십 되돌아보기- 부끄러운 통제형은 이제 그만
- 서번트 리더십 도전- 경청, 헌신하며 공감하기
- 분산적 리더십 도전- 권한과 책임 나눠 갖기

2. 독백자에서 갈등무로: 위치성을 찾아가며

- 함께 배우는 자- 교사들 속으로 들어간 원장
- 교사 지원자- 내려놓고, 채워주는 원장

3

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

가르치는 자?

교육과정
전달자?

교사는
어떤 존재인가?

배우는 자?

교육 실천가?

1. 배움의 길센에서: 마음 열기

- 그래, 우리는 '공동체' 다
- 서서히 다가오는 배움의 즐거움
- 배움을 향한 교사의 열정

2. 여정을 고쳐 매고: 고민하며 실천하기

- 아이들의 놀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 기록화의 작은 변화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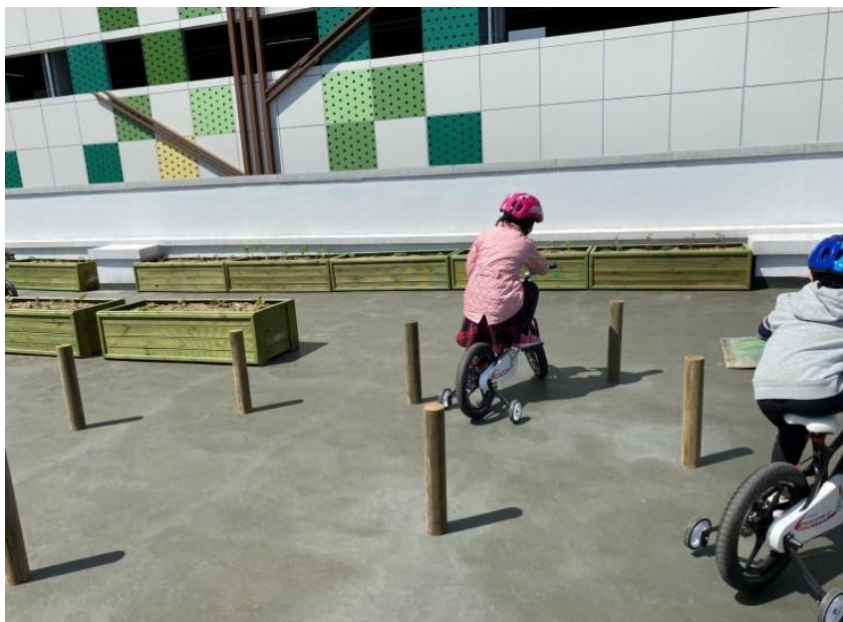


한 손을 놓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한 손으로 타기, 일어나서 타기 등 자칫하면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들이지만 나름대로 놀이를 더 신나게 즐기기 위해 생각해낸 놀이 방법이라는 생각에 아이들의 놀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전의 ‘나’라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의 놀이를 제지하고 “두 손으로 잡고 타야지!”라고 나무랐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나름 기술을 부리며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아이로 비쳤다.

(2019.4.10)



사례 A

놀이 공간에 대한 고민 나누기(1)

아이들의 놀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들의 놀이 욕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아이들을 보면 이유 없이 보육실 밖으로 뛰어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즐기기도 하고, 다른 반에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형제자매가 있는 반에 관심을 보이고 엄청 놀러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조 교사)

사례 A

놀이 공간에 대한 고민 나누기(2)

저희 반 아이들은 교실 안에서도 사각지대? 교사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놀이를 즐겨요. 넓지 않은 교실에서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의 특징이 막혀있고, 비밀스럽고, 은폐하기 쉽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아이들은 교사의 눈을 피해 놀고 싶고, 익숙한 공간에서의 탈피, 자기만의 놀이 공간 생성, 새로운 공간으로의 모험 이러한 놀이 공간에 대한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려면 놀이 공간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교사)

사례 A

놀이할 공간을 결정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교실과 교실이 이어진 놀이



이동 공간으로 확장된 놀이



실내외가 통합된 놀이



사례 B

모험놀이터를 향하여



국내외 모험놀이터 사례
(초빙 강사)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기

사례 B

현재 바깥놀이터는 어떻게 놀이 되고 있는가?



사례 B

놀이터에 모험적 요소를 넣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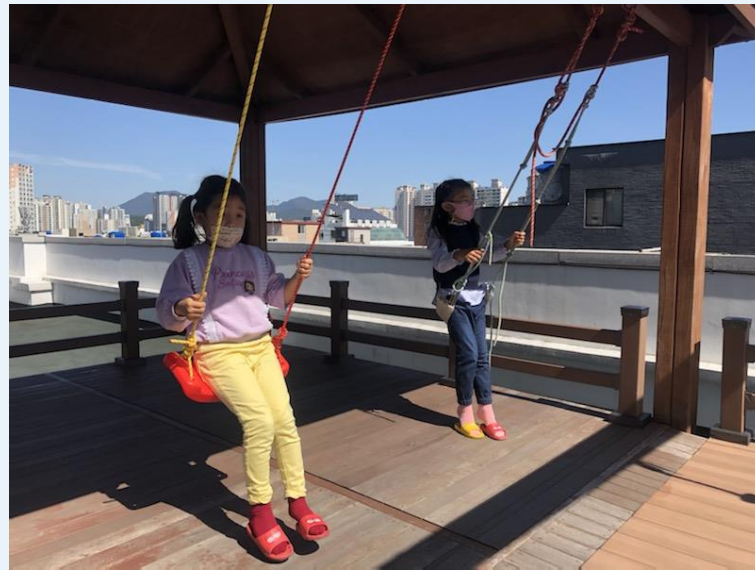
밧줄을 이용한 놀이



사례 B

놀이터에 모험적 요소를 넣을 수 있을까?

밧줄을 이용한 놀이



사례 B

모험놀이터로 어떤 모험적 요소를 넣을 수 있을까?

돌담을 이용한 놀이



2. 여정을 고쳐 매고: 고민하며 실천하기

- 아이들의 놀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 기록화의 작은 변화 시도



사례 C

기록에 대한 고민 나누기

기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록에
주로 등장한
주체는
누구인가?

기록의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례 c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실천하기)

맥락과 상황을 포커싱하여 더 넓게, 복잡한
맥락을 짚어낼 수 있는 교육적 기록

교육적 교사의 고민들을 담아낼 수 있는 방식

여러 형식을 취하여 기록할 수 있는 플랫폼(블로그,
카페 등)을 찾아 자유롭게 기록하기

장점

- 아이들의 놀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음
- 담아내고 싶은 내용도 많아짐
- 사진과 글을 함께 넣게 되니 더 생동감이 넘침
- 블로그를 하는 것 같아 재미있음
- 열정도 자꾸 생김

단점

- 기록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짐
- 1분 놀이하다 다른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경우, 교사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노동이 뒤따름
- 모든 에피소드를 꼭 넣어야 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움

4

놀이지원 ing...

#사라게 1: 물

<물 나르기 게임>

규칙: 물을 최대한 흘리지 않고 가기





“ 물놀이를 즐기는 101가지 방법 ”



「천만예요, 백 가지가 있어요」

로리스 말라구찌

어린이는 백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백 가지의 언어

백 가지의 손

백 가지의 생각

백 가지의 사고하는

놀이 말하는 방식을...

백 가지의 귀 기울이고

감탄하고 사랑하는 방식

노래하고 이해한 것에 대한

백 가지의 기쁨

백 가지의 발견해 낼 세상

백 가지의 꿈 꿀 세상을...

어린이는 말합니다.

천만예요, 백 가지가 있어요.



수영장 놀이



워터 슬라이드



놀이하며 무엇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다양한 배움이
일어나고 있나요?

5개 영역

신체운동
·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유아의 경험



오늘 수영장은 실험실 그 자체였다. 아이들은 물을 가득 담기 위해 통 입구에 집중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담고 적게 담기 위해 물이 입구에서 얼마나 보글보글하는지 지켜보았다. 통을 가만히 누르고 있기도 하고 통을 기울여보기도 하고 통을 밀고 다니며 움직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의 공통점은 통을 잡은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어 잡았다. (만1세 보육일지, 22.7.27)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배우며, 어떤 놀이를 이어 가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고 있음.



실습선생님의 놀이 개입은 아이들의 놀이 흐름을 바꿔놓았다. 어쩌면 개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놀이 방향으로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의 양을 통에 담으며 조절했던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물통의 입구를 막았다가 떼면서 경험했을 물의 움직임은 ●●가 감응할 수 있기에 충분했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 ●●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나에게 같이 놀이하라고 표현했던 것 같다.

(만1세 보육일지, 22.7.29)



그동안은 주로 도구 없이 물놀이를 즐기거나 교실에서 사용하고 있던 빈 요구르트통을 활용하여 물놀이를 즐겼다. 오늘은 주변에 있던 화분을 아이들이 발견하여 물놀이를 즐겼는데 완전히 뚫려 있지 않고, 그릇의 형태로 어느 정도 물을 담을 수 있지만 구멍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 물을 계속 담고 있을 수는 없는 특성이 아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 것 같다. 통을 가지고 놀 때는 물을 많이 모으는 것에 흥미를 느끼던 아이들은 오늘 화분을 가지고 놀이할 때는 물을 모으는 것보다는 화분의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는 물에 흥미를 보였다. 같은 아이가 물이라는 같은 물질을 가지고 놀이하더라도 어떤 사물과 함께 놀이하는지에 따라 놀이는 변화무쌍하게 움직인다.

(만2세 보육일지, 22.7.26)



제가 열심히 준비한
자료로 아이들이 즐겁게
놀 때 성공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의 놀이를 잘
들여다보고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필요해요

교사의 놀이 지원 역량

유아존중

놀이
존중과 이해

즐거운
상호작용

적절한
놀이자료 찾기

놀이 환경
공간 구성

간략한
기록

안전교육

지역과
함께하기

#사라기 2: 숨바꼭질

☺☺가 ((를 향해 “내가 술래 할게.” 라고 먼저 말하였다. 그리고 ☺☺가 공기청정기가 있는 옆으로 서서 벽을 기대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하고 말하였다. ((는 교구장 뒤로 숨었다. ☺☺가 “찾았다.”하며 교구장 가까이 가자, “((이 찾았어.”라고 말하였다. ((이가 일어서며 “아이~, 내가 이제 술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도 숨을게.”하고 참여하였다.

처음에는 교구장 뒤로 숨기, 기둥 뒤로 숨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숨었다. ☸☸는 큰 베개 밑으로 숨었다. 그래도 아이들이 서로서로 찾아내자, ☸☸는 자신의 사물함 안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린 외투로 몸을 숨겨서 찾을 수가 없었다. ☸☸이가 보이지 않아 교실 밖으로 나가 여기저기 찾다가 새싹반 형님들도 만나 함께 숨바꼭질놀이를 이어 나갔다. ☺☺와 ((는 교구장 뒤에 앉아 교구장 높이에 맞춰 종이블록을 쌓아 숨을 공간을 만들어 숨어있기도 하였다. (2019.12.23)

< 교사의 되돌아보기 >

숨바꼭질하는 것에 아이들이 즐거워하였는데, 처음에는 넓은 장소가 아닌 반에서도 이뤄졌으나 점차 1층 홀까지 이어지며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비록 술래를 정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들은 “내가 해!” 또는 “내가 할거야!”라고 말하면서 서로 이끌어가고 따르는 모습이었다. 교사가 개입할 틈도 없이 아이들 스스로 놀이에 몰입하였다. 그리고 숨바꼭질을 하는 놀이 공간들도 아이들마다 다양하게 표현하여 교사도 흠뻑 빠져서 놀이를 해보았다. 1층 홀을 ‘거실’이라고 표현하는 아이들의 말에 그렇게 부르는 것도 어린이집이 집처럼 느껴서 정겨웠다.

(달님반 보육일지, 2019.12.23.)

다른 놀이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 ☺☺가 “숨바꼭질 할래?”라고 말할 때 나는 ‘교실에서 어떻게 숨바꼭질 하지?’, ‘기둥 뒤 밖에 숨을 곳이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하며 그 모습을 보는 과정에서 ‘아 저렇게 숨을 수가 있구나!’하면서 그 때 나는 열려가고 있었다. 그래서 ((가 술래 되었을 때 나도 함께 하고 싶어졌다. 다른 아이들도 나처럼 놀이를 하면서 그 과정을 보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함께 하면서 아이들마다 숨는 방법도 다양하고 기발하였다. 눈만 가리면 다 숨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공간으로 꼭꼭 숨어버려서 ‘교실 안에서도 이렇게 숨을 수가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렇기에 나도 아이들이 못 찾는 기발한 공간을 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마침내 코너 안에 숨었다. 그 때 ✨가 따라 들어와 “쉬쉬”, “까르르” 서로 마주 보고 웃으며 긴장감과 동시에 즐거운 흥분을 느꼈다. 이제부터 내가 감응되고 나 자신을 열어가며 발현적 귀 기울이기를 하면서 앞으로 아이들을 더 잘 볼 수 있는 열린 시선으로 봐야겠다.

내가 느끼고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나의 사고를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노력하고 공부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지 교사, 배움의 노트, 2019.12.27.)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진정으로 교사들의 배움
과 학습이 일어나고, 그것이 현장을 바꾸어 나
가게 하는 멋진 일이라는 것을 교사 스스로 깨
닫는 것이야말로 학습공동체가 자력으로 굴러
가게끔 만드는 동력이다.

놀이지원자인 교사에게 드리는 tip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자원, 훨씬 더 유능한 재능과 잠재성을 가진 아이들을 신뢰하자!

아이가 주도하고 스스로 배우며,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역량을 이끌어주자!

아이들의 목소리에 늘 경청하면서 상호작용할 준비를 갖추자!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매우 다양하게 제공해주자!

아이들에게 놀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자!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는
힘은 바로 선생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장에서 교육을 실천하면서
경험하는 고민과 질문을 동료교사와 함께 나누고
도전하면서 또 나만의 여정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